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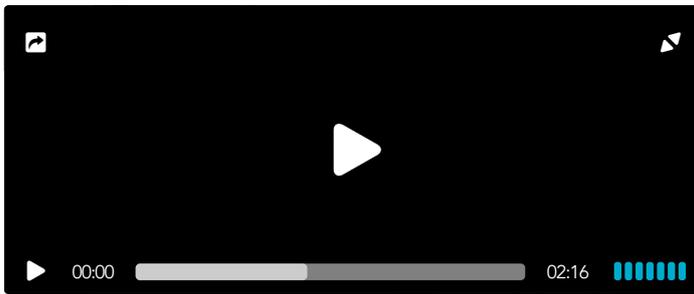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 Q

홈 > 불교

108 천리순례단 '사명대사의 길'을 걷다

박상규 기자 | 입력 2021.10.17 13:39 | 수정 2021.10.18 00:07 | 댓글 0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상월선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순례 회향을 앞두고 국내 최대 고원 습지이자 호국대성 사명대사의 흔이 서린 밀양 사자평에 올랐습니다.

순례자들은 은빛 억새물결이 넘실거리는 '사명대사의 길'을 걸으며 극난극복과 불교 중흥을 발원했습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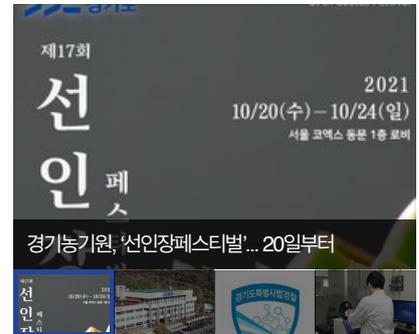
가을 초입에 들어선 밀양 사자평이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때마다 이는 은빛 억새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최신뉴스

- 전국 | 경기농기원, '선인장페스티벌'... 20일부터
- 전국 |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 전국 |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 전국 | 경기도 보환연, 의약외품 품질검사 대행
-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박경수의 아침저널 클로징] 깊어...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영취산 그대도가 법신 부처"
- 2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제주시 국장 '상습성 인정'...
- 3 [코로나19] 오늘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
- 4 노인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
- 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제권 추진 박차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밀양 재약산 사자평 은빛역새 사이로 걷고 있다. BBS.

대표적인 고원습지이자 전국 최대 역사군락지로 꼽히는 밀양 사자평은 호국성지 표충사, 호국대성 사명대사 등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훈련시킨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중반, 불법화전 등으로 황폐해진 사자평의 자연생태는 표충사의 도움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자평은 또 과거에는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와 밀양 표충사를 이어주는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인터뷰]오심스님/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불교신문 주간)

"사자평은 제가 어릴때 스님들과 안거 때마다 따라서 많이 왔던 곳인데, 거의 20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오늘 오니까 (가을역새가 아름답게) 출렁이는 모습이 좋은것 같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사명대사의 숨결이 깃든 사자평을 걷는 것 자체가 큰 가르침이자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밀양 재약산 사자평을 순례하고 있다. BBS.

[인터뷰]김정도/상월선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

"처음엔 자꾸 생각을 채우려고 했는데, 걷다보니깐 비움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더러구요. 그래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비워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수행을 통해 비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 대장정 마침표...통도사에서 회



7 경북 16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경북도 '지방소멸'



8 오세훈, 전임 시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관련 단체 반발



BBS칼럼

-  전경운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사산'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NEW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사명대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사자평 순례를 통해 하루빨리 국난이 극복되길 순례자들은 오늘도 발원합니다.

밀양 사자평에서 BBS뉴스 박상규입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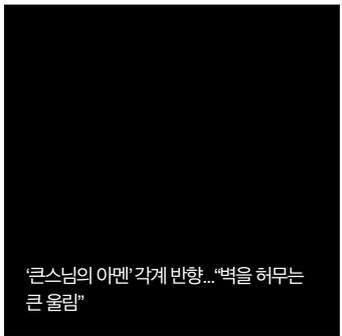
추천
1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뻘을 허무는 큰 울림"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 병원-...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경기농기원, '인장페스티벌'... 20일부터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





경기도 보환연, 의약외품
품질검사 대행



[박경수의 아침저녁 클로
징] 깊어가는 가을...안치환



중구형 방과후 학교, 전국
최초 지자체 부담 "호평"...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CS